

“지혜의 눈으로 안개를 헤쳐가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임진년 신년사

임진년 새해가 성도(成道)의 새벽으로 밝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밝히신 날로 새해를 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가 스스로 가득하다는 심심상인(心心相印)의 뜻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두 번의 선거와 북녘에서 전해진 세연이전(世緣已盡)의 소식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공존과 번영, 평화와 행복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날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있어 서로 안헤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분별하는 밝은 지혜의 눈



북서 전해진 世緣已盡 소식
새해 두 번의 선거는
민족명은 좌우할 전환점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날 열 수 있어야

로, 국민이 찾으면 일깨움기(一體十起)하는 참된 지도자를 알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시간의 한 편을 담당할 우리로서는 정확한 선택과 판단을 도리(道理)로 알아야 합니다. 조화로운을 추구하는 것은 큰 미덕이지만 바르고 확실한 결단이 가지적인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오늘의 안개를 헤쳐가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간 물살을 거슬러 마침내 용이 된다는 물고기처럼 모든 분들에게 승천하는 기상이 선업(善業)의 공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원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

국립공원 사찰 환경개선 ‘앞장’

환경부, 문화재 보유사찰 내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예정오수처리시설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하기로

환경부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교계와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사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공원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12월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2012년 상반기에 공원문화유산지구를 마무리해 사찰 수행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

겠다고 밝혔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을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립공원 내 총 365개 사찰 가운데 188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문화유산지구가 마무리 되면 불사를 위한 시설 설치 간소화와 더불어 수행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찰은 공원관리청과 협의의 통해 문화재 보호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인장도 정도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설은 환경부가 총 금액의 80%를, 해당사찰이 20%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진행했으며, 그동안 지리산국립공원 수도암, 북한산국립공원 원안사, 가야산국립공원 원안사 등 94개 사찰에 총 23억여원이 지원됐다.

김승희 자연자원과장은 “정부와 사찰측이 환경개선 및 공원관리에 있어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2@daegu.com

공개경영으로 경영난 타개
불교방송, 노·사 공동선언

불교방송에서 노사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 지난12월 23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연말 이전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불교방송 이재일 사장과 장용진 노조위원장 등은 이날 마포 사육 인근

음식점에서 공동서명한 ‘위기극복을 위한 불교방송 노사 공동선언’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협력 결실로 사전제거와 경영내부 사정 전면 공개 및 생산성 향상에 노사공동 연구실행 등 4개항을 공식화했다.

이 사장은 “투명경영과 노동법 준수 등을 통해 단체협약을 굳건히 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불교법에 임각한 경영

에 노사가 모두 책임을 느껴 공개경영으로 경영난을 타개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미디어를 총력투쟁 과정에서 사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됐고 재무제표 등을 노조에 전면 공개하므로 대의원의 동의를 구했다”며 “내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체결에서 최선을 다할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kimj08@daegu.com

한중일대회 공로 사찰
낙산사·진관사 ‘표창’

양양 낙산사와 서울 진관사가 한중일 불교대회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정견실에서 낙산사와 진관사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양양 낙산사 주지 무문스님(사진 위)과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사진 아래)에게 각각 표창패를 수여하며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한중일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졌다”고 축하했다.

이에 무문스님과 계호스님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잘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 11월 개최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양양 낙산사는 자체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장소 및 편의 제공 등을 통해 대회가 여망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다.

서울 진관사는 한중일 대회 기간 중국불교협회를 초청해 사찰음식 등을 접대하며 한국불교와 종단의 위상을 높였다.

김하영 기자 hykim@daegu.com

“그늘진 곳에 온정 전해졌으면”

이희구 회장·양용은 골퍼 자비나눔기금 전달

행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 아름다운동행으로 잇따라 담겨졌다.

이희구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사진 위쪽)은 지난 12월23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취임식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며 “아름다운동행 활동에 관심 갖고 기금을 전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희구 회장은 “스님의 배려로 무



사히 마쳤고, 특히 불교를 처음 접하는 젊은이들이 스님 법문을 듣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늘진 곳에 온정의 손길이 전해져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양용은 프로골퍼(사진 위

쪽)도 총무원장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2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은 “올 시즌 무사히 마치고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양 전수는 “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심이 깊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한 양 전수는 신심이 깊은 선수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에는 텔스스테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2@daegu.com

서울 서남권 포교 ‘땀 올랐다’

국제선센터, 불교대학 첫 졸업식…51명 배출

지난해 전문교육기관 설립
불교인재 양성 ‘결실’

서울 서남권 거점도량인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스님)가 불교대학 첫 번째 졸업생 51명을 배출했다. 국제선센터는 지난 12월 18일 2층 대법당에서 국제선센터 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0년 11월 개원한 국제선센터는 서울 서남권 포교 및 교육 거점도량인 만큼 지난해 4월 19일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을 개학, 불교인재를 양성했다. 이날 첫 졸업식에는 주야간반 81명의 입학생 가운데 1년과정의 커리큘럼을 이수한 51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며 불교인재로서 신행과 포교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졸업식에서는 윤화영, 김선향 씨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바쁜 일상생활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에 매진한 11명은 개근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탈리아 살레리노영



지난 12월18일 국제선센터 2층 대법당에서 국제선센터 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화재 영화음악그래프리를 수상한 피아니스트 윤강욱 씨가 축하연주를 통해 졸업을 축하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스님은 격려사에서 “끊임없는 자기 수업을 위해 매번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계열식 차기 서울포교사단장은 축하에서 “1기 졸업식

을 축하하며 국제선센터 불교대학이 더욱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지난 12월 22일 장애인과 전의경들과 동지발족을 나눠 먹는 ‘동지발족 자비나눔 대중공양’을 가졌다. 선센터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양천경찰서 전의경부대를 찾아가 800여명의 동지발족을 나눠 먹고 달력을 선물했다. 박인택 기자

maeil

매일우유
Fresh Energy

저지방&칼슘
0.8% 지방 2+
100% 원유

오리지널
1A
동결원유

무지방&칼슘
0% 지방 2+
100% 원유

채우자!
Fresh Energy
매일우유

매일우유는 논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내일을 건강하고 활력있게 채워줍니다

매일유업(주) 1588-1539